



## 그리스, 긴축(안) 최종합의로 디폴트 위기 모면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그리스 정치권은 제2차 구제금융 지원의 전제조건인 긴축(안)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여 왔으나 최종 시한이 다가오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해 디폴트 가능성이 증대되었음.
  - 연금의 15% 삭감을 놓고 그리스 총리와 과도정부 구성을 지지한 연립정당 당수들 간의 이견이 컸었음.
  - 3주째 계속되었던 그리스 제2차 구제금융 협상이 미궁에 빠졌으며, 최악의 경우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받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유로존 이탈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긴박한 상황에 처했음.
  
- 유럽연합(EU), 유럽중앙은행(ECB), 국제통화기금(IMF) 등은 그리스에 1,3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최저 임금 22% 삭감과 연금 축소, 공무원 감축 등의 긴축(안)을 모두 수용하라고 독촉한 바 있음.
  - 그리스 정치권은 민간부문의 최저 임금 22% 삭감과 공공부문 인력 연내 1만 5,000명 감원, GDP 대비 1.5% 규모의 추가재정 긴축조치 등에 대해선 합의를 봄.
  - 반면, 그리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연금 삭감 요구에는 합의하지 못함.
    - 이는 4월 조기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 실패를 우려했기 때문임.
  
- 그러나 2월 10일 그리스는 연금 삭감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EU, ECB, IMF 등이 제시한 긴축(안)을 수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정대로 1,300억 유로의 제2차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됨.
  - EU 등은 2월 10일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다른 재정지출을 줄여 3억 유로를 삭감할 수 있다는 여지를 그리스 정치권에 줌.
  - 그리스 정당 대표들은 EU 등의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됨.
    - 연금 삭감의 대안을 찾는 데 15일의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짐.

- 그리스는 3월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145억 유로의 국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돼 디폴트를 맞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됨.
- 한편, EU 등의 요구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2012년 30억 유로 등 2015년까지 총 130억 유로의 지출을 삭감해야 함에 따라 그리스 내부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.
- 그리스 노동계는 지출 삭감이 공공부문의 실업자 증가,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뿐만 아니라 그리스 경제를 더 깊은 침체의 골로 이끌기 때문에 정부의 긴축(안)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2월 10일부터 48시간 총파업을 예고함.
  -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단체인 노동자총연맹(GSEE)은 민간부문 노조들과 함께 2월10일과 11일 총파업을 벌일 것 이라고 밝힘.

(Bloomberg 2/10, 2/8, Spiegel 2/5)